



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.

- 최근 국고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, 외국인 국채투자 추세도 견조

□ 최근 국고채 금리는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-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및 미국 연준의 2025년 정책금리 인하 폭 축소 전망*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년 1월부터 다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* 12월 FOMC(12.18) 점도표에서 2025년 기준금리 인하 예상 폭을 $\Delta 100\text{bp} \rightarrow 50\text{bp}$ 로 축소

< 연물별 국고채 금리 추이(최종호가수익률 기준) >

(국고채, %)	'23.12.30	'24.12.3	'24.12.10	'24.12.26	'24.12.30일	'25.1.7일	'24.12.30일 대비(bp)	'23.12.30일 대비(bp)
2년물	3.262	2.649	2.634	2.792	2.765	2.671	△9.4	△59.1
3년물	3.154	2.585	2.524	2.648	2.597	2.508	△8.8	△64.6
5년물	3.156	2.606	2.586	2.809	2.763	2.661	△10.1	△49.5
10년물	3.183	2.713	2.645	2.904	2.855	2.794	△6.1	△38.9
20년물	3.111	2.648	2.573	2.844	2.876	2.740	△13.7	△37.1
30년물	3.088	2.579	2.497	2.773	2.794	2.693	△10.0	△39.5

□ 외국인의 국채 투자 추세도 견조합니다.

- 12월 외국인 국채 투자는 2.9조원 순유출되었으나, 이는 12월 외국인 국고채 만기상환(3.5조원) 집중*이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되며

* '24.3월에도 외국인 만기상환(7.0조원) 집중 등 영향으로 5.1조원 순유출

- '24년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가 19.2조원 순유입되었으며, 금년 1월 외국인 국채투자는 순유입세로 다시 전환*하고 있습니다.

* '25.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액은 +1.0조원(1.6일 기준)

-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1월 6일 자 보도*에서 글로벌 채권 펀드들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국 국채를 지속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.

* “Korean Markets Ride Out Crisis as Global Debt Funds Keep Buying” 제하 기사

<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 및 순투자 추이 >



- 외국인의 국채 선물 투자는 향후 금리 전망, 금리 변동성을 야기하는 외생적 요인 발생 등에 따라 현재(국채선물 매도) 또는 미래(국채선물 매수)의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.

- 2024년 12월중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한 포지션 정리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, 이는 일반적인 시장 움직임의 일부입니다.

* WGBI 편입 이슈 등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 포지션을 확대해왔으나, 12월 FOMC에서 연준의 2025년 정책금리 인하 폭 축소 전망 등 영향으로 매수 포지션을 축소한 것으로 평가

외국인 국고채 선물 순매수 자금 추이 (단위: 조원)

외국인 선물 순매수(조원)	'22년	'23년	'24년	10월	11월	12월	'25.1월 (7일 기준)
3년물	+5.1	+10.4	+6.4	△4.2	+8.3	△8.3	+1.4
10년물	△1.5	+1.1	+2.3	△4.6	+4.8	△7.6	△2.3

-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 순매도세를 보이는 경우에도 국채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

-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상승한 금리(가격이 낮아진)의 국고채를 매입하게 될 유인이 발생합니다.
 - 또한, 국채 선물거래는 만기일에 현물 채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들 간 차액만을 정산하는 현금결제 방식인 바, 선물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더라도 국채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
- 정부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필요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·시행 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국채과	책임자	과 장	곽상현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청윤 (044-215-5133)

